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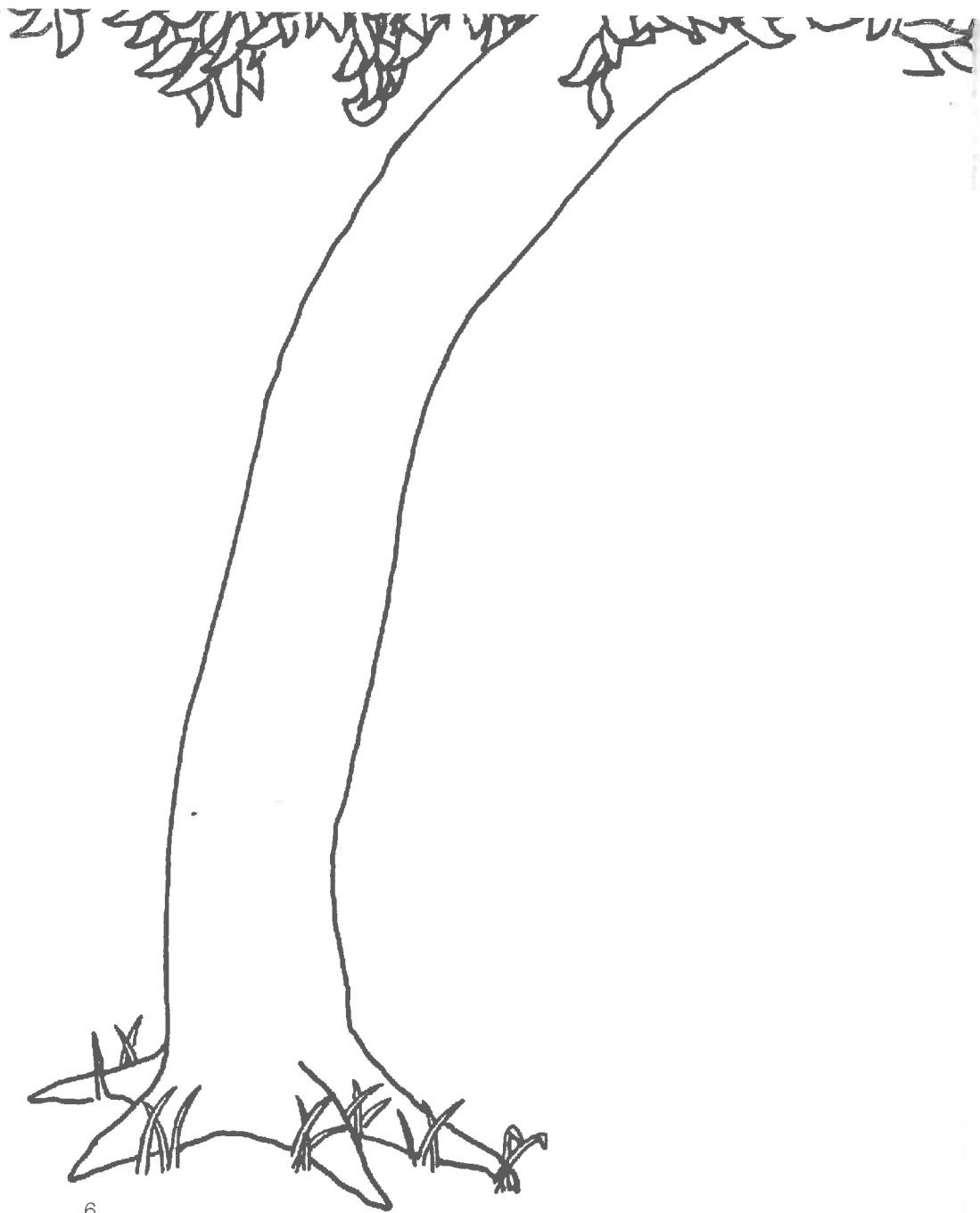
아낌없이 주는 나무

tree



옛날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한 소년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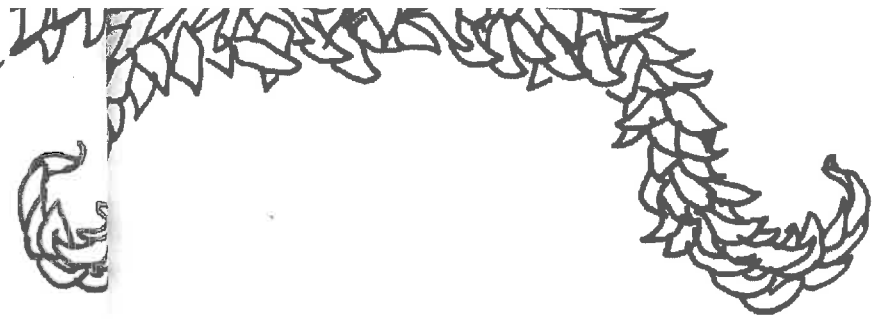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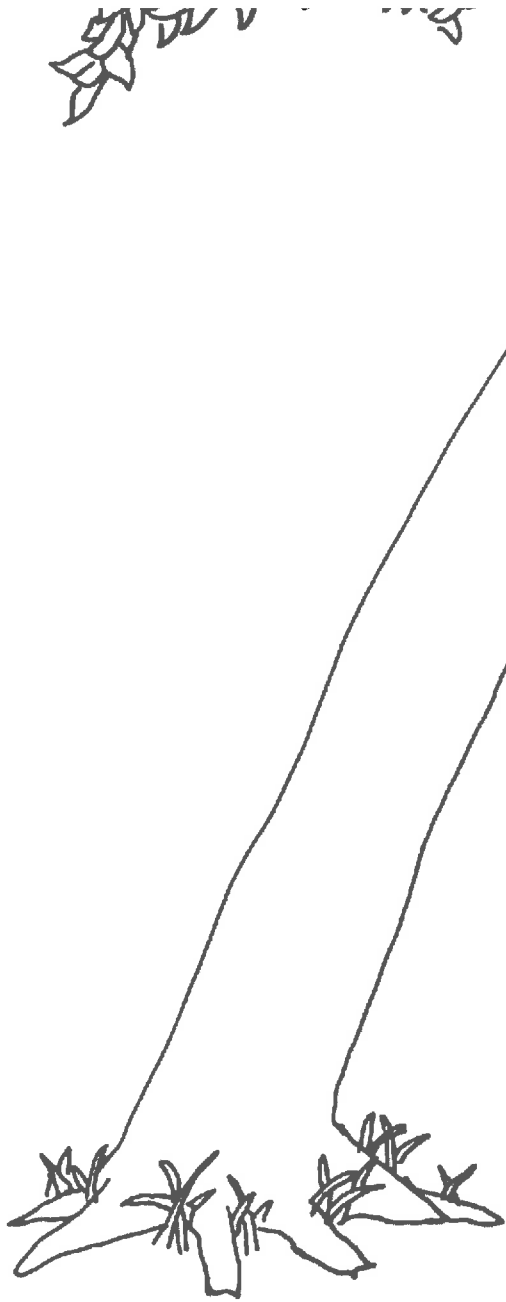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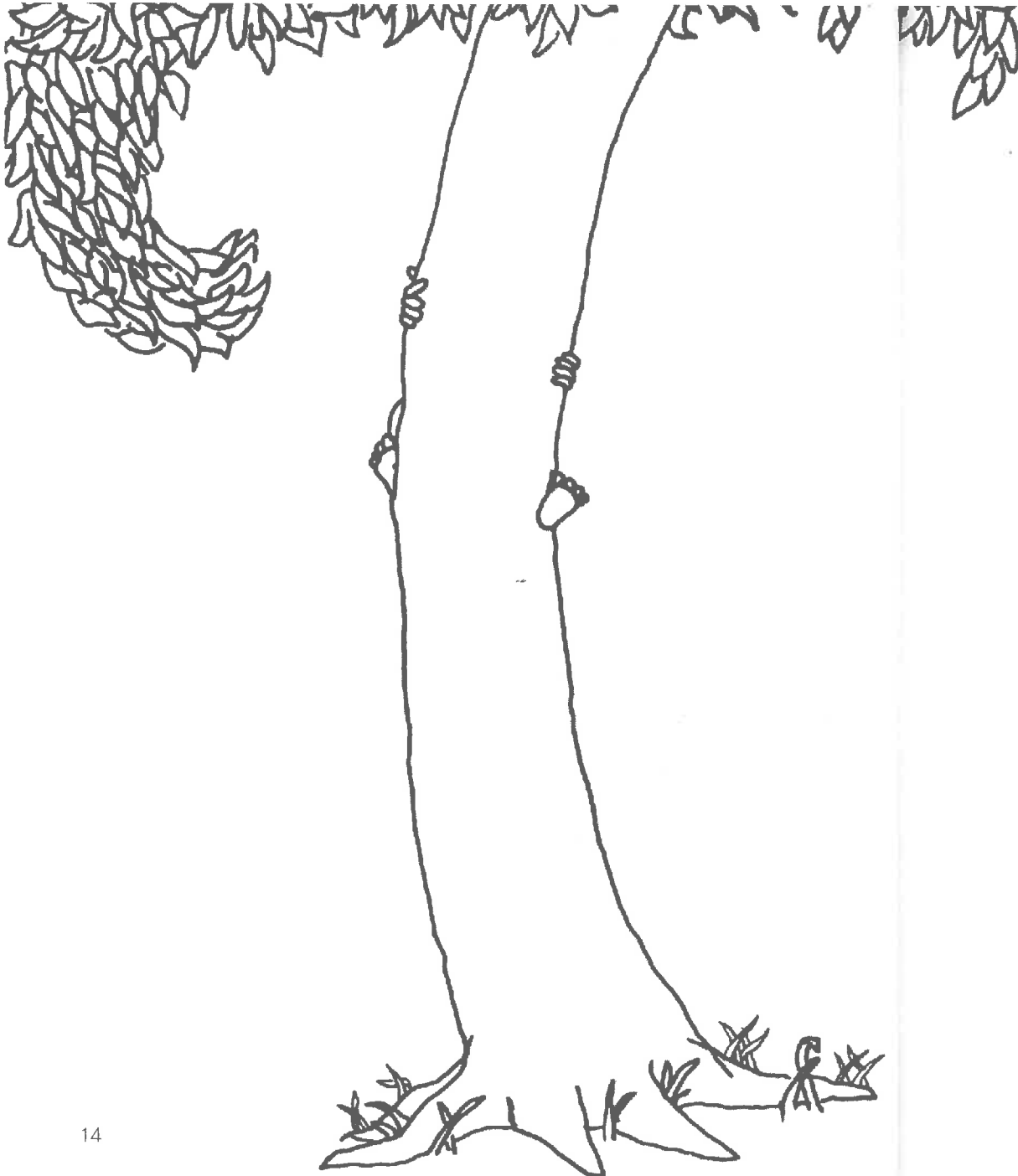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우면서
놀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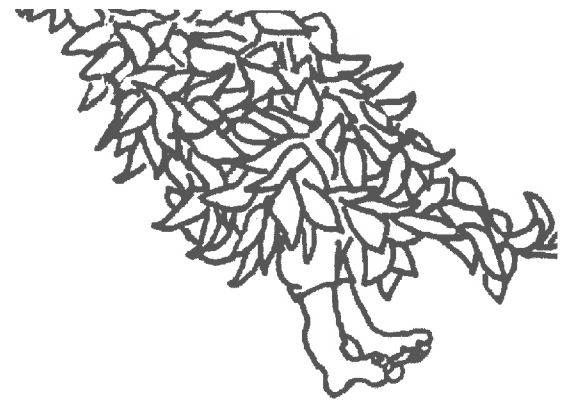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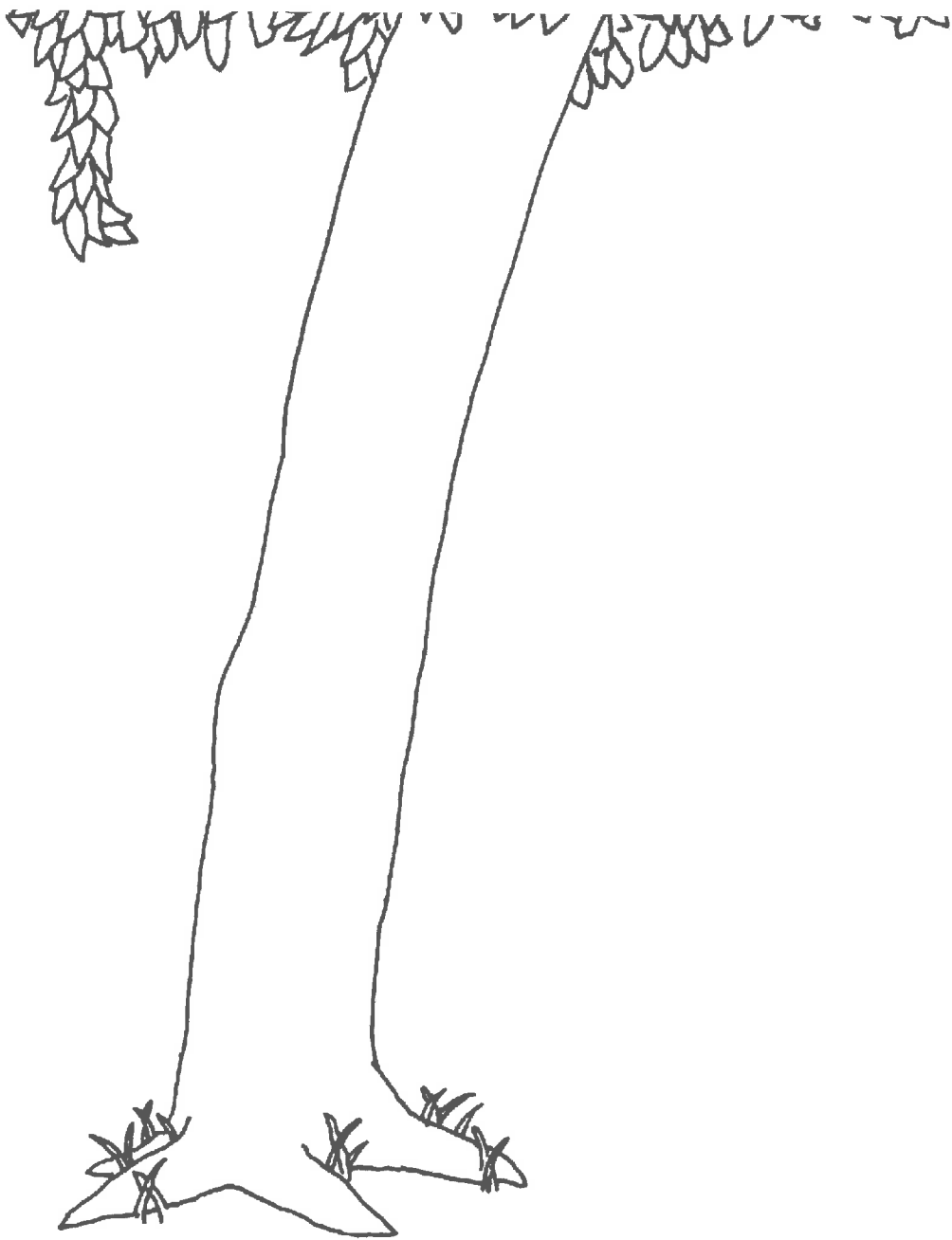
그러다가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숲 속의 왕자 노릇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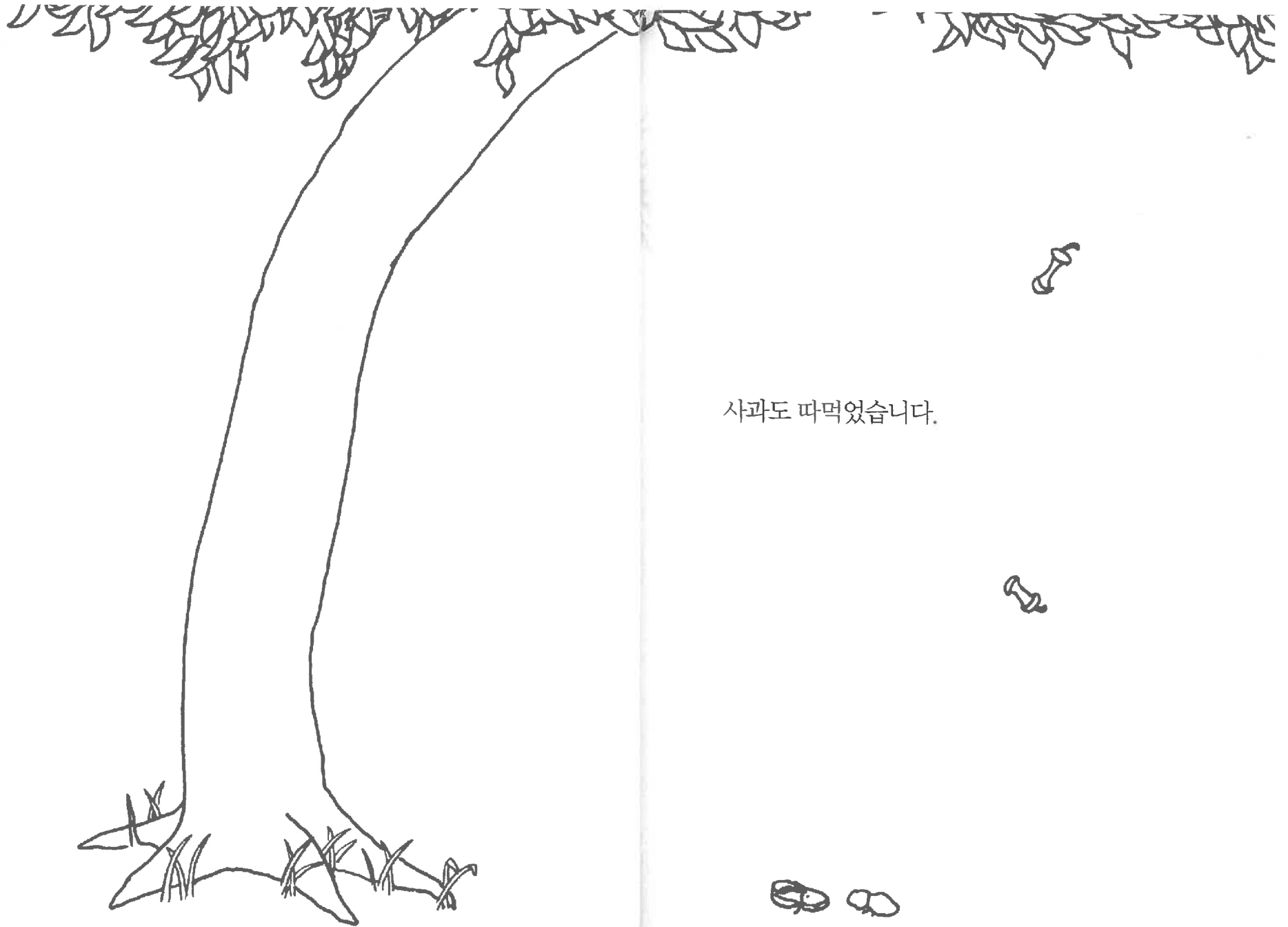
소년은 나무 몸통이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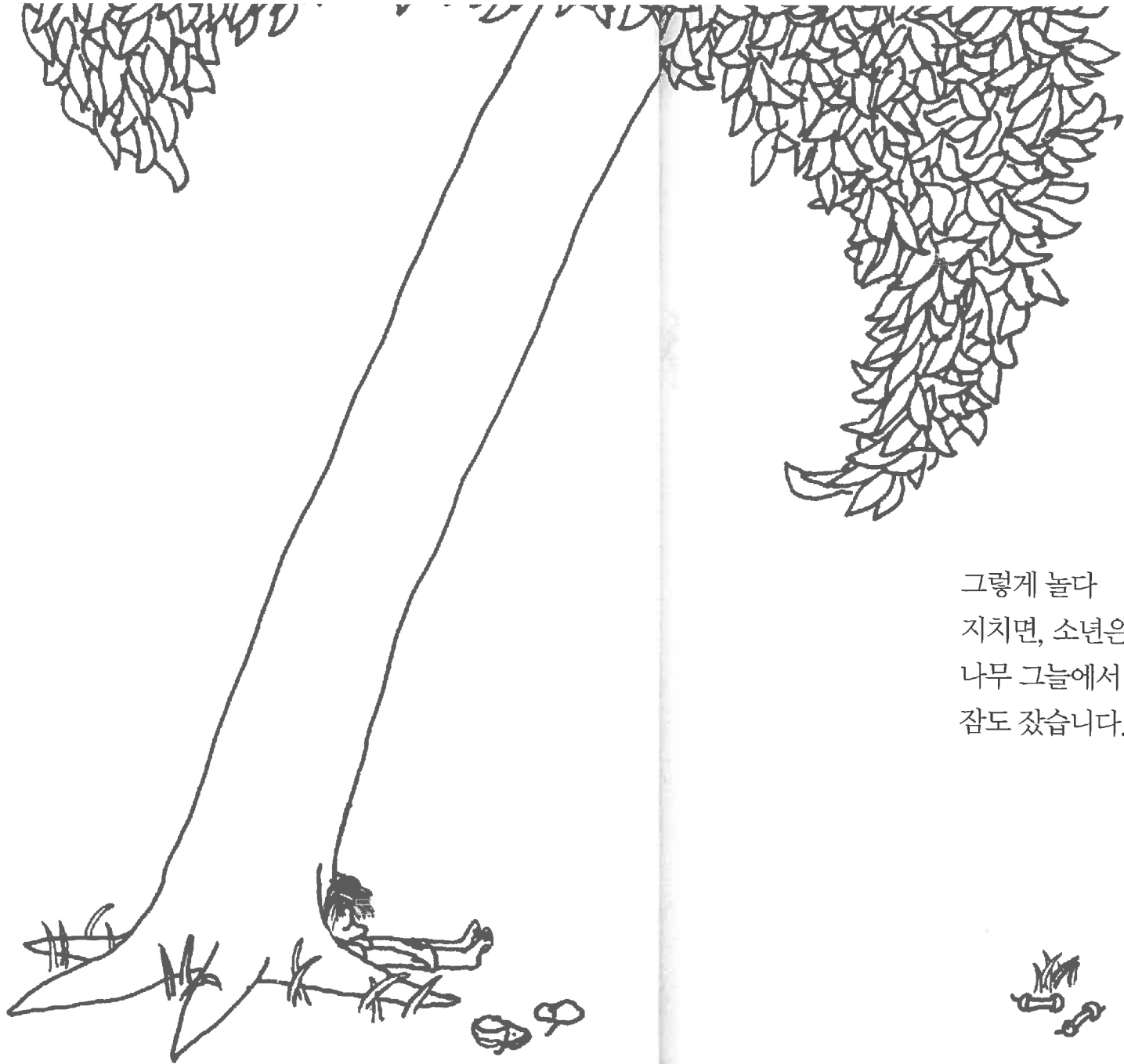


사과도 따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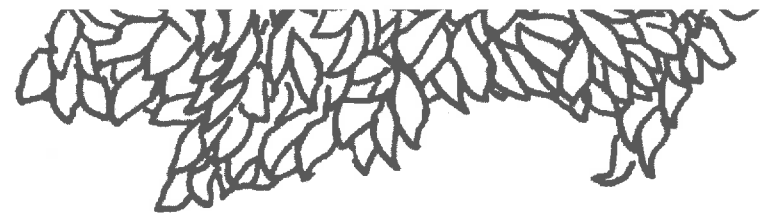


그리고 그들은
숨박꼭질을 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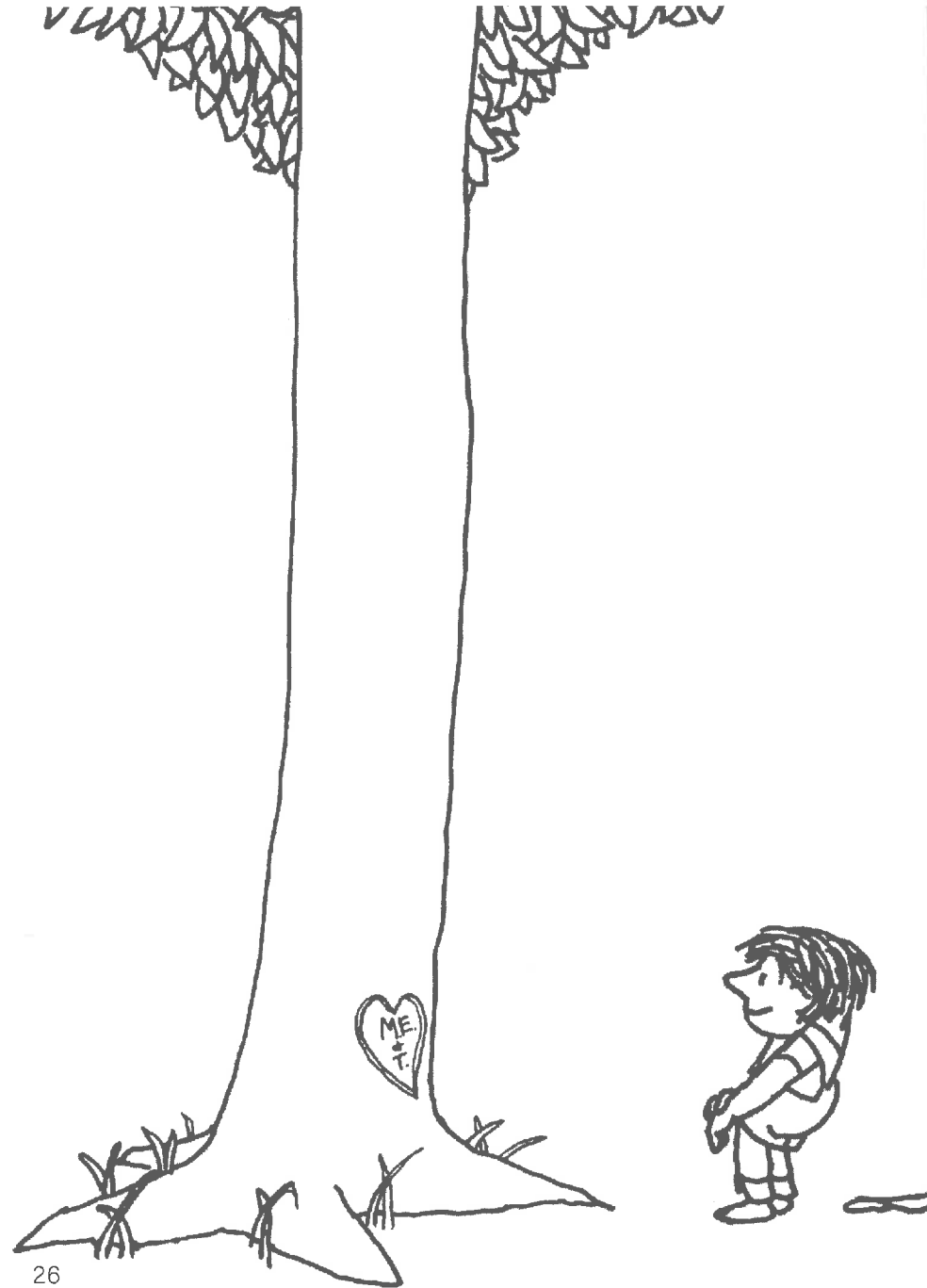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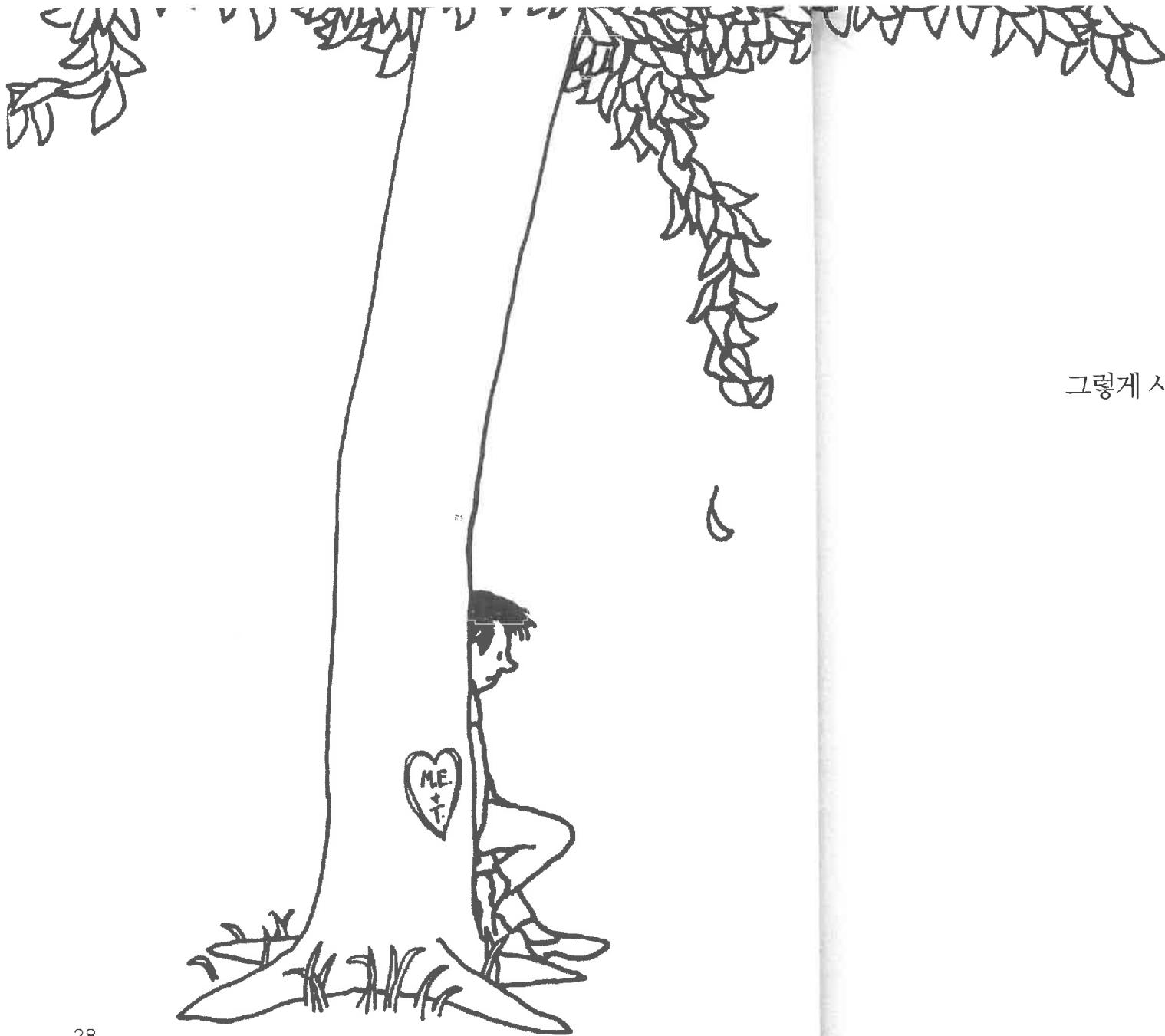
그렇게 놀다
지치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잠도 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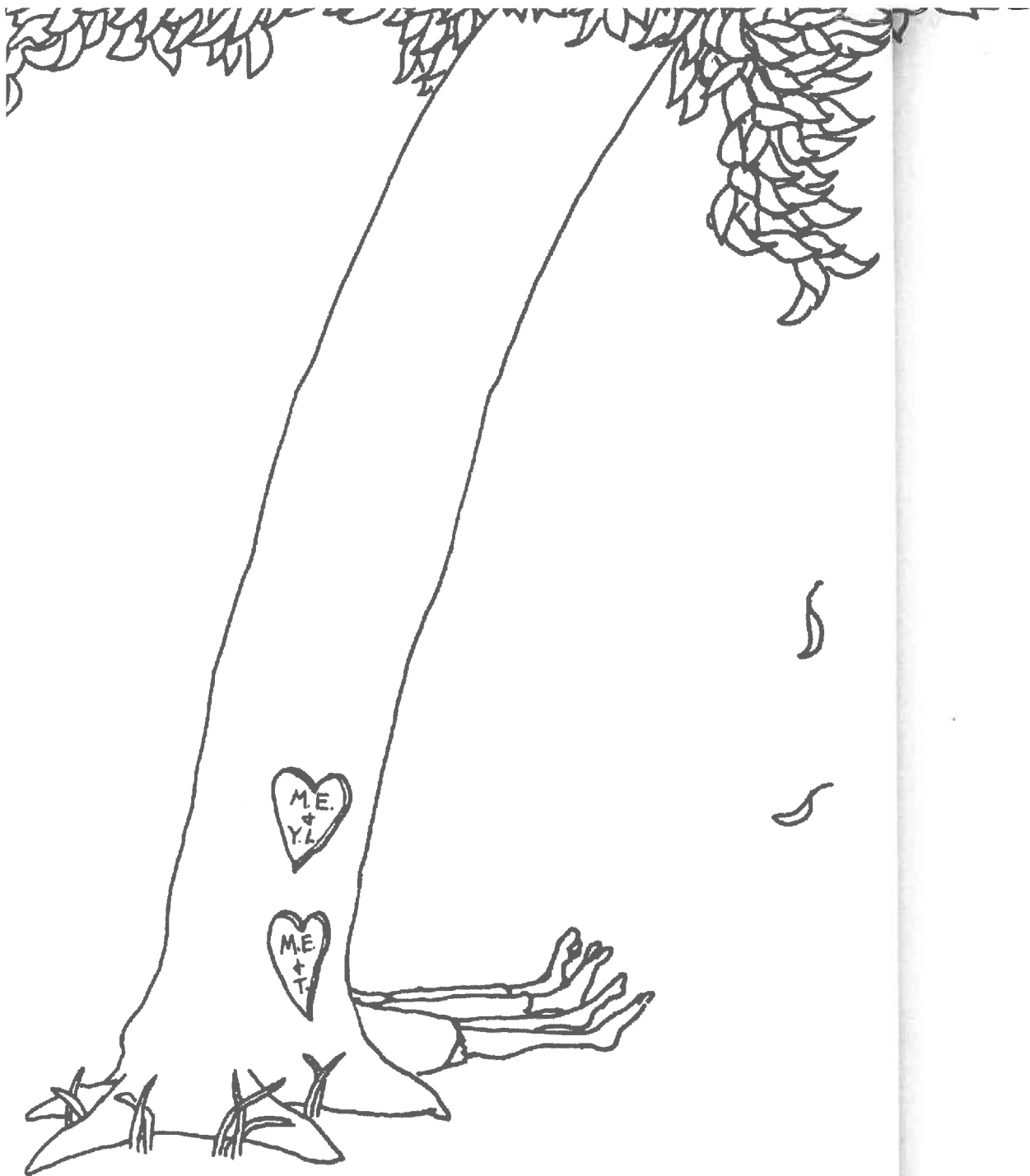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점점 나이가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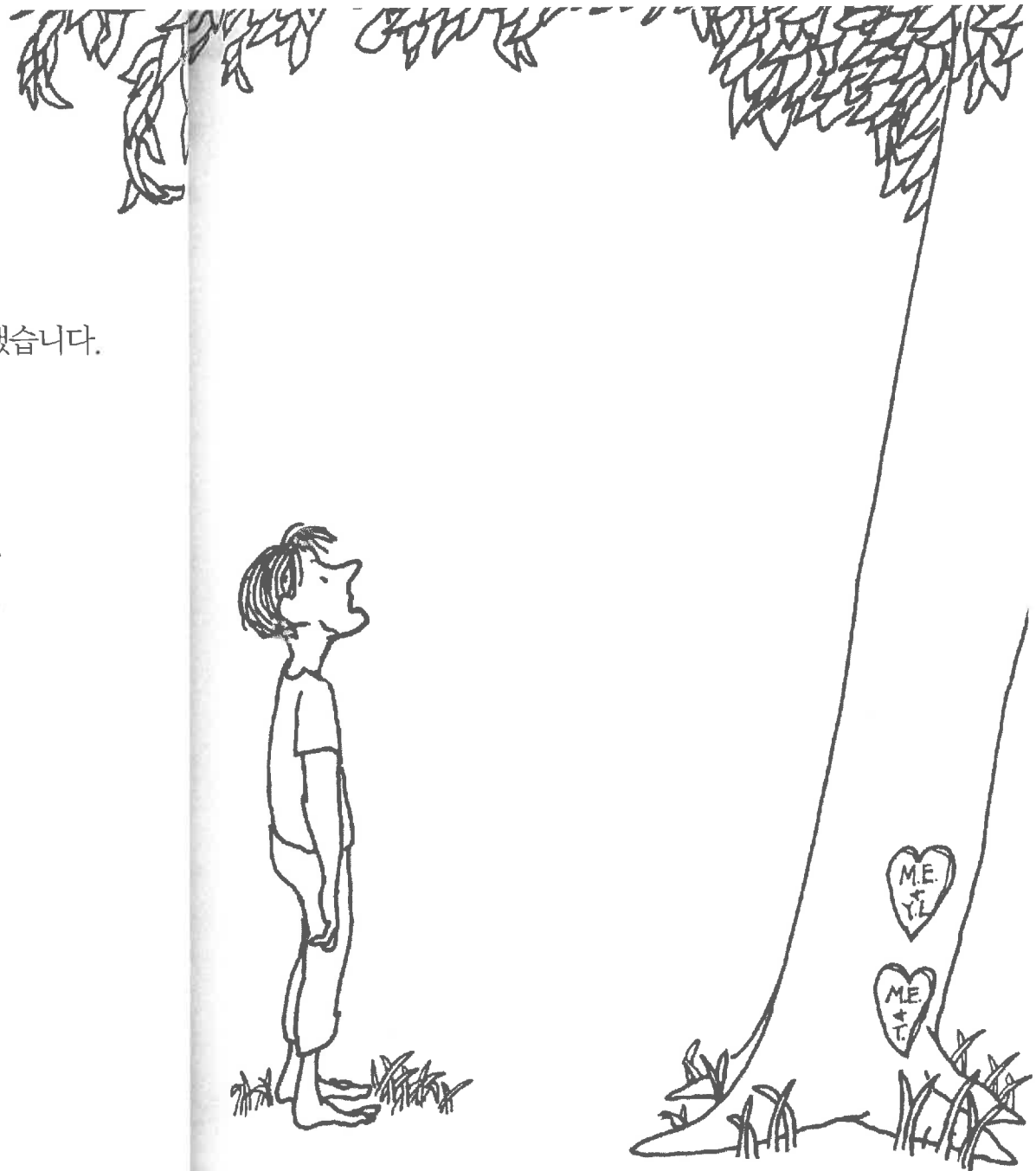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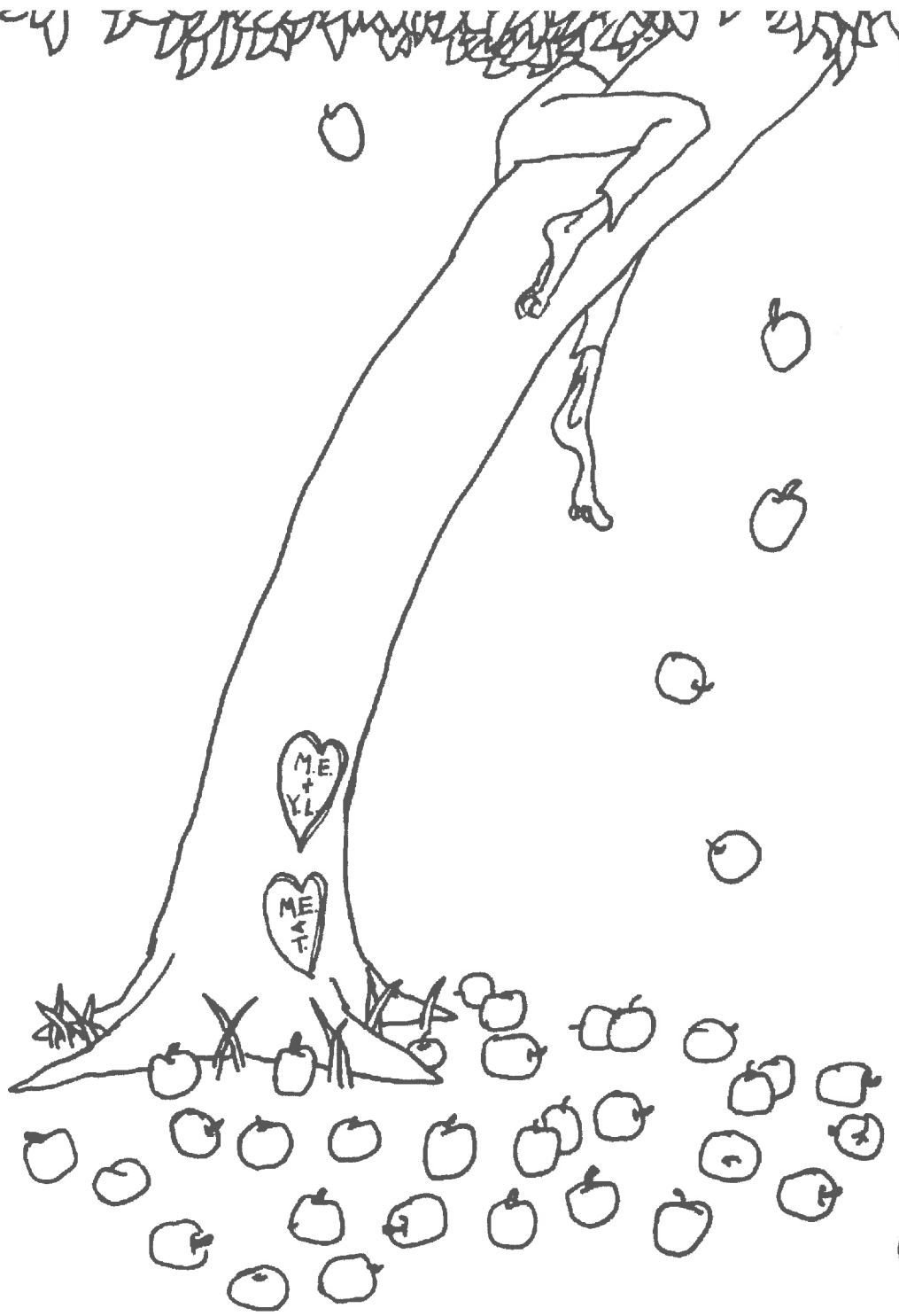
“얘야, 옛날처럼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재미있게 지내자.”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엔 너무 컸는 걸.
나는 뭔가 사고 싶어. 신나게 놀고도 싶단 말야.
돈도 있으면 좋겠고.

나에게 돈 좀 줄 수 없니?”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는
돈이 없어. 나뭇잎과 사과밖에는 말이야.
얘야, 내 사과를 가져가 팔면 돈이 생길 거야.
그러면 넌 행복해지겠지.”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로 기어 올라가
사과를
모두 따서는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난 소년은 세월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기쁨에 겨워
몸을 흔들었습니다.
“얘야, 내 몸뚱이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서 그네도 타며 신나게 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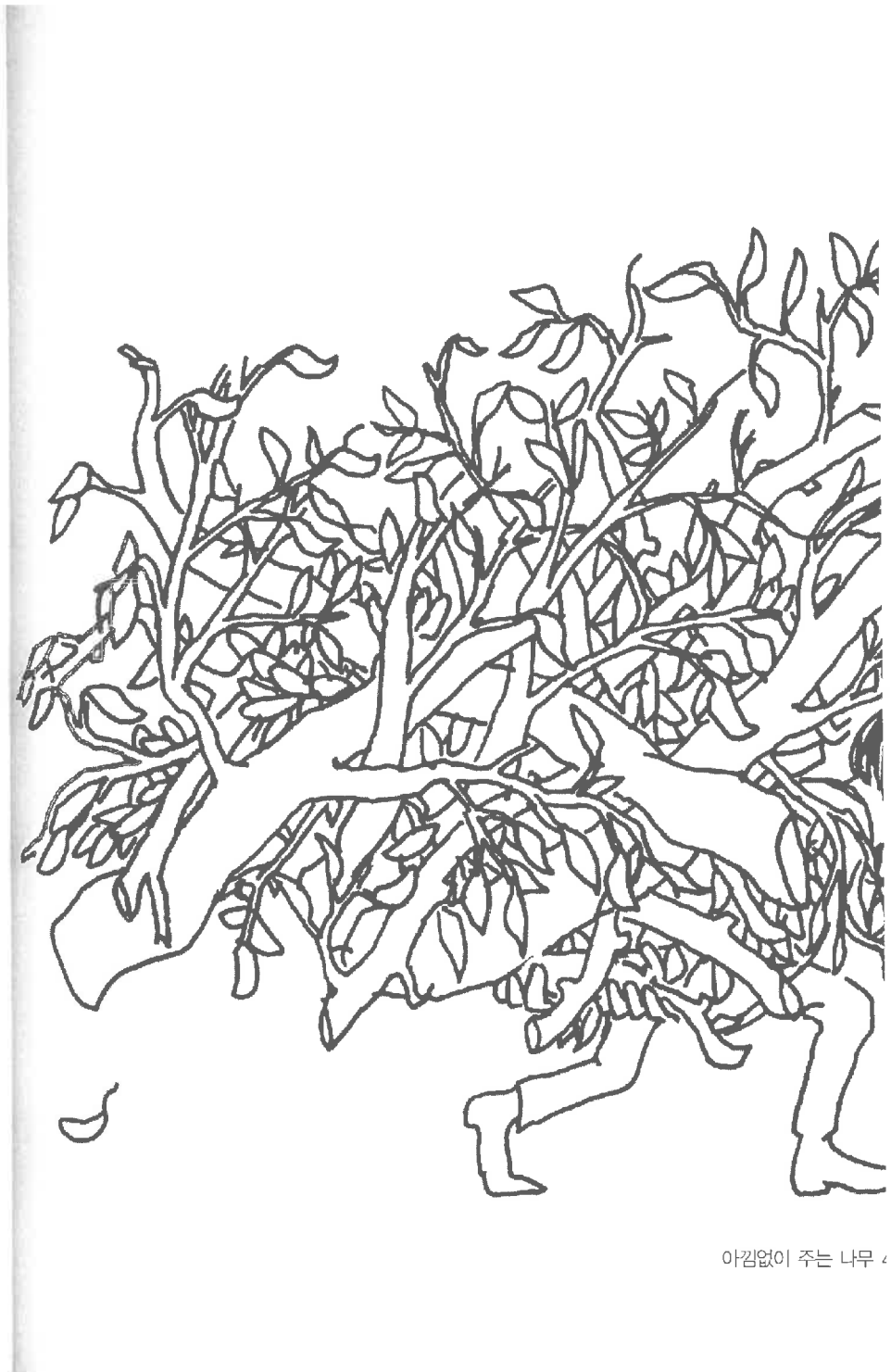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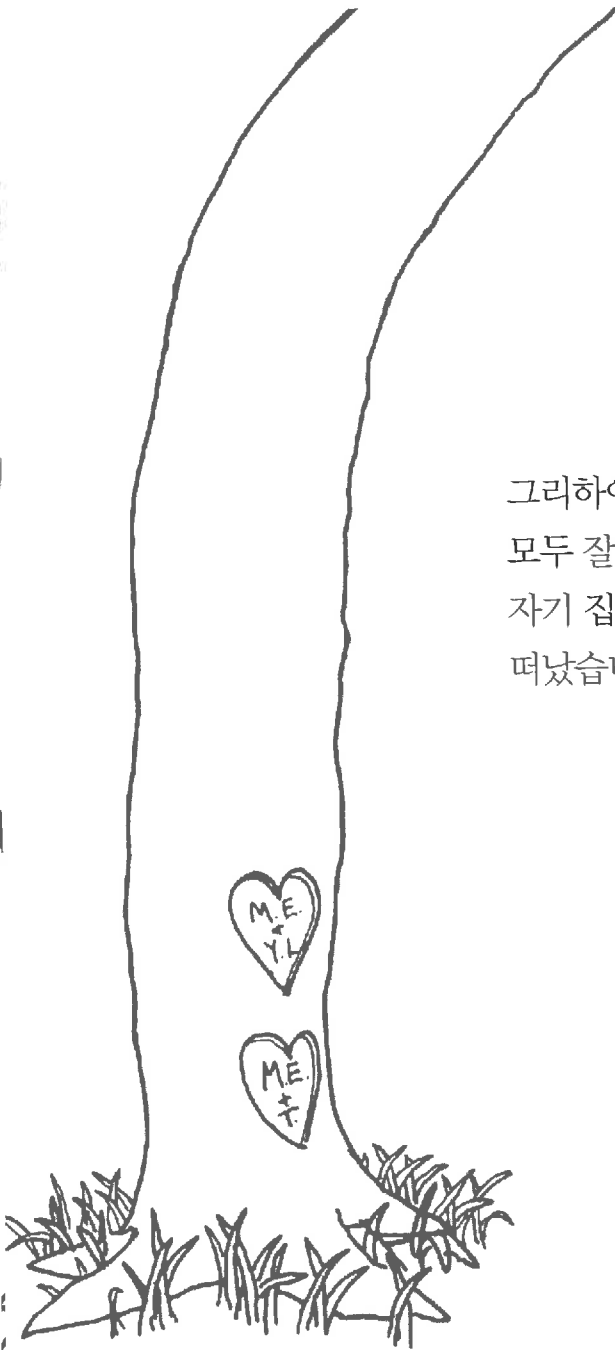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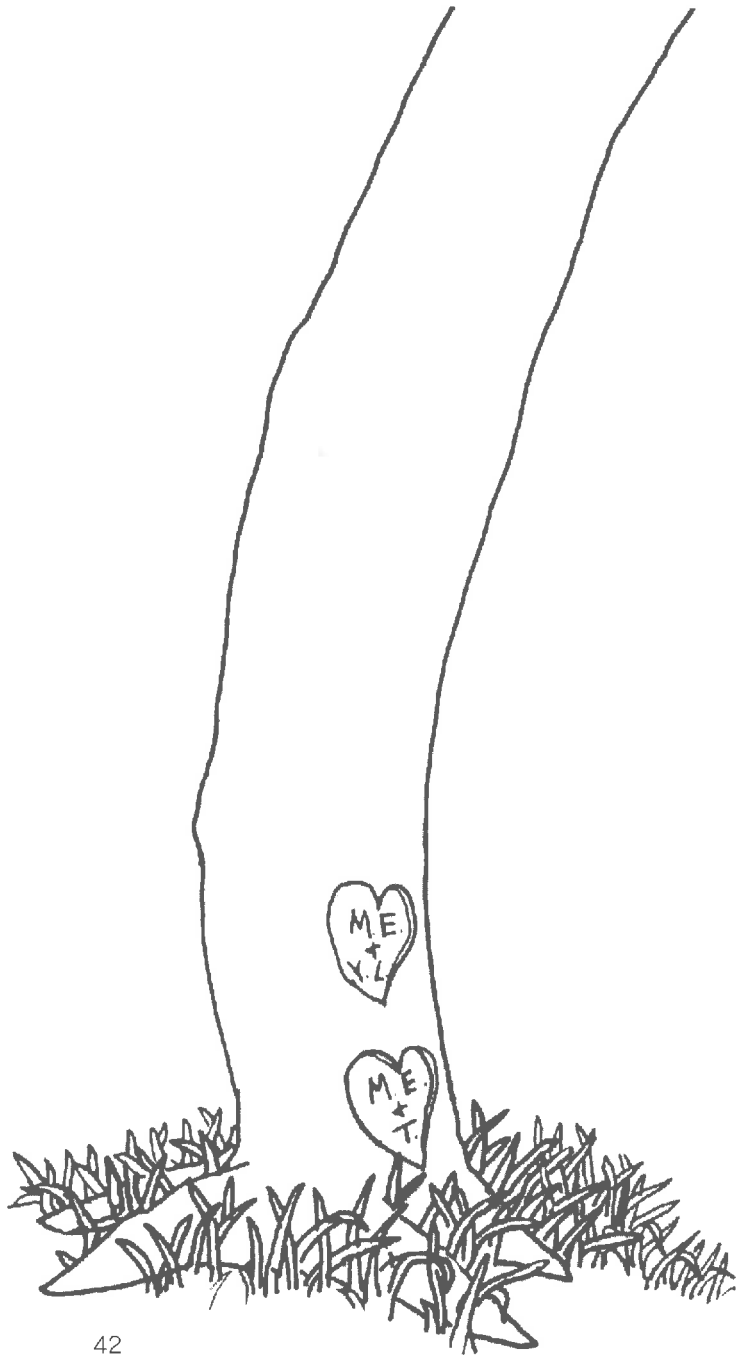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따뜻하게 지낼 집이 있으면 좋겠어.
아내도 있어야 하고 아이들도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집이 필요하단 말야.
너 나에게 집 하나 구해줄 수 없겠니?”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어 보렴.
그러면 넌 행복해 질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뭇가지들을
모두 잘라서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떠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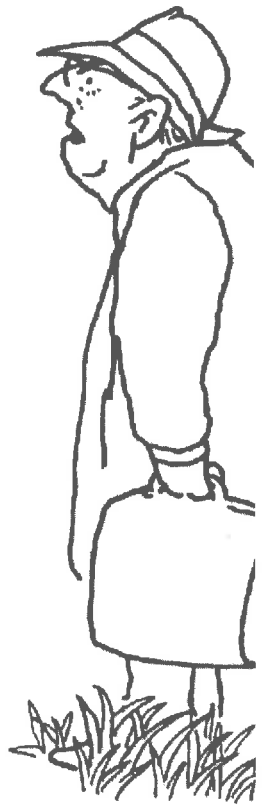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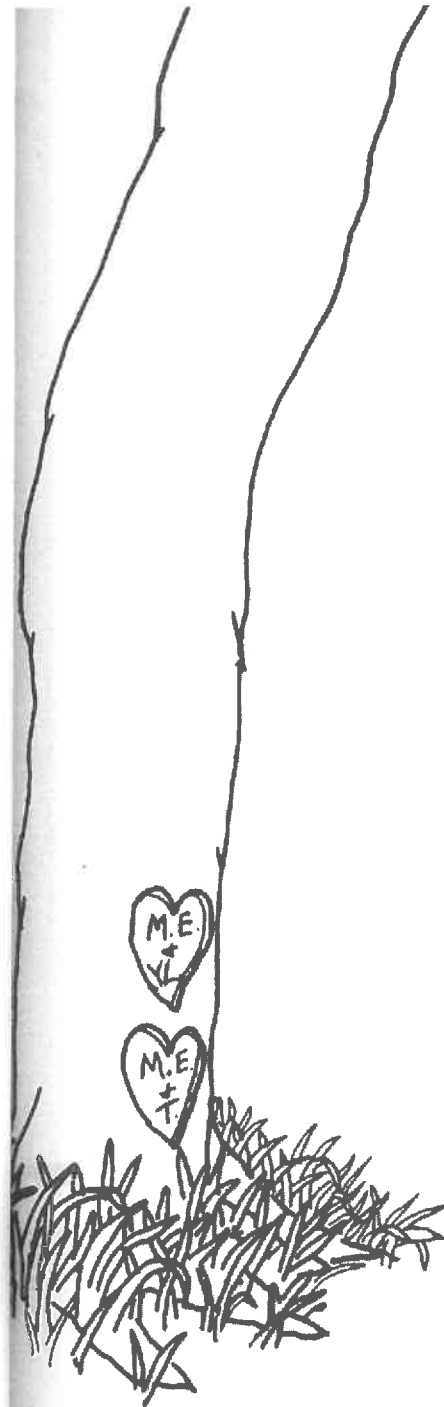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세월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애야, 이리와. 함께 놀자.”
“나는 이제 너무 늙었고 슬퍼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먼 곳으로 나를 데려갈
배 한 척만 있으면 좋겠어.
너는 내게 배 한 척 구해줄 수 없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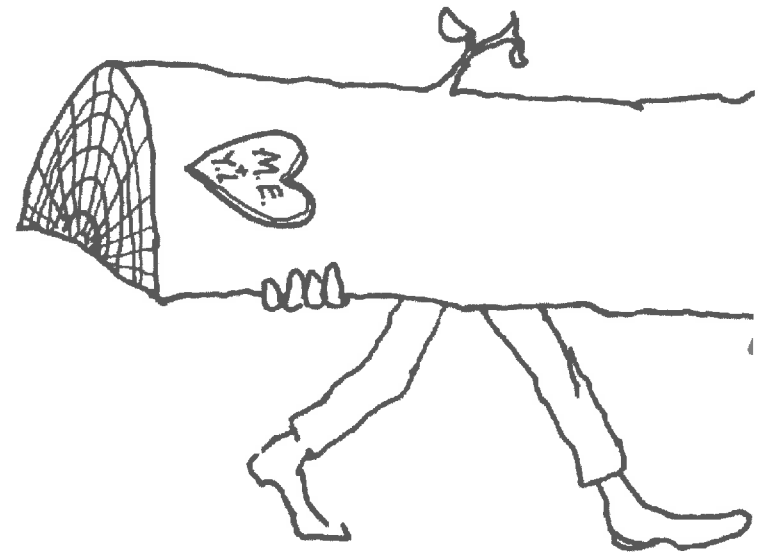
“내 몸뚱이를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 보렴.”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날 수 있고……
또 행복해지겠지.”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몸통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단다.”



“사과도 없고.”
“나는 이가 약해져서 사과를
먹을 수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그네를 탈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놀기에
나는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몸뚱이마저 없으니
네가 기어오를 수도 없고……”
“나는 이제 기운이 없어서 기어오를 수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가 한숨지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아무 것이라도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구나.
나는 늙어 버린 나무 그루터기일 뿐이야.
미안해……”

“나무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다만 앉아서 쉴 수 있는 조용한 곳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로 몸뚱이를
세우면서 나무가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그루터기가 제일이야.
이리로 와서 앉아.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